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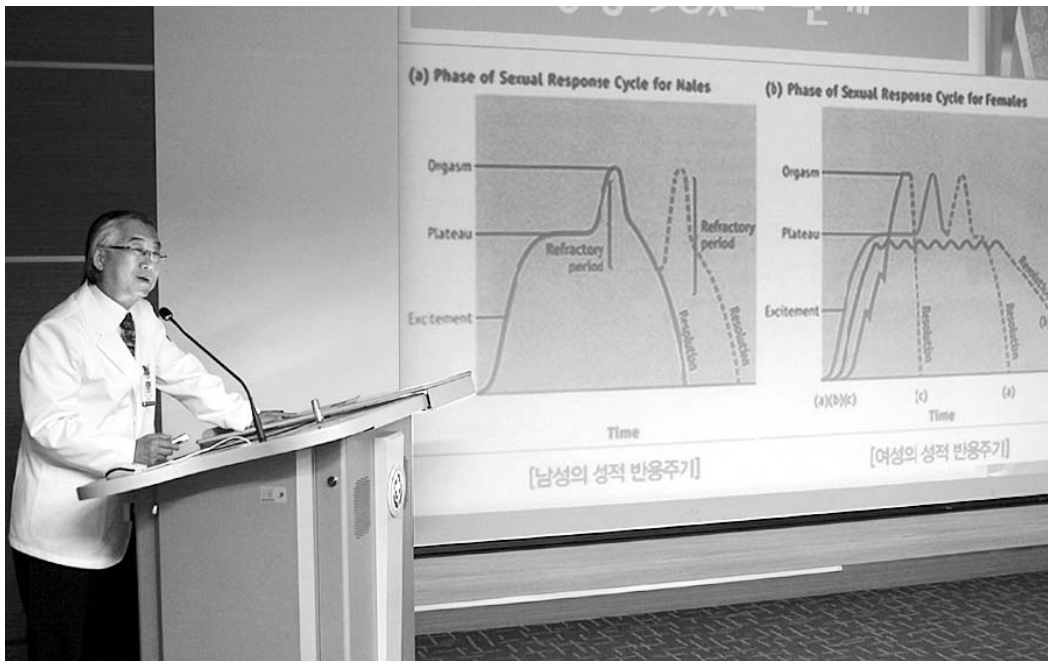
레파가 있는 시민 건강 강좌

여성 성기능 장애

상담 통한 심리적 장애 극복 가장 중요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병의 원인을 병태적 원인, 정신적 원인, 혼합적 원인으로 구분한다.

정상적인 섹스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흥분하는 흥분기를 거쳐 전회에 의해 흥분을 일으키는 고조기, 그리고 절정에 달하는 오르가즘을 지난 다음에 원상태로 회복하는 회복기의 진행단계를 보인다. 정상적인 섹스단계는 이래야만 하며, 수시로 측정해 제시하기는 어렵다. 개인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여일 교수가 여성 성기능장애의 주된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법 및 행동요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기능 장애=이러한 단계적인 성적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를 포괄적으로 성기능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성기능 장애를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성욕장애이다. 성욕 장애는 다시 성욕저하 장애(획득형)와 성욕 장애(생태형)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는 성적흥분 장애이며, 셋째는 성반응(오르가즘) 장애, 넷째 성적통증 장애이다. 성적통증 장애는 다시 성교 통증과 질 경련으로 나누어진다.

이 네가지 장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욕 장애이다. 성욕은 섹스를 요구하는 욕망이나 충동으로 나타나는 성반응의 발단이며 체형이나 성격에 의해 조성된다. 그런데 생태형 성욕 저하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가지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심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목격했다거나 성적 학대나 인한 외상을 입었던 경험이 배경이 되기도 한다.

획득형 성욕 장애는 자신의 신체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후천적으로 성욕을 상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파트너십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심신의 질환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교시 통증이나 오르가즘 장애가 반복되거나 노화나 질병, 수술에 의한 신체 이미지 저하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성적 흥분장애는 성교시에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메카니즘은 성욕에 적절한 성적 자극이 주어지면 성적 흥분반응이 일어난다. 신체에서는 골반 내에 혈류가 증가하고, 성기가 충혈되어 팽창하는 한편 질벽에서 윤활액이 주출돼 골반저근들이 긴장하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생태형 흥분장애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전달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획득형 또는 일시적인 흥분장애는 불안이 관여하거나, 임신 또는 성교 염증에 대한 우려, 성교통, 또 상대에게 내가 어떻

성에 대한 억압·불안 등 병태·정신·혼합적 원인서 비롯 필요할 땐 약물·수술 치료... 폐경 후엔 호르몬요법으로

게 보여질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신체적 원인에 의한 흥분장애는 성기의 혈류장애 또는 신경마비, 여성호르몬 결핍에 의한 질 윤활액 감소, 남성호르몬 결핍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셋째, 성반응(오르가즘) 장애이다. 오르가즘이란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면 리드미컬한 운동과 함께 골반저근의 긴장이 없어지는 교감신경 반사이다. 그런데 심인성 오르가즘 장애는 무의식적으로 오르가즘 반사를 억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잡념이 성적 감각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성에 대한 억압이나 오르가즘에 대한 불안이나 잘못된 생각, 즉 자신이 오르가즘 조절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성교통증 장애는 다시 세가지 증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외음부, 혹은 삽입시의 표재성 성교통인데 주로 외음부, 질입구부의 염증성 질환이 원인일 수 있고, 남성 성기 삽입때 피스톤 운동때 마찰통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골반 내의 심부성 성교통은 골반 내 장기에 염증이거나 유착, 종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궁내막증, 만성 골반복막염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질 경련은 질의 밖 1/3 부분의 근육에 반복성, 또는 지속성의 통제 불가능한 긴장성 연속이 일어나 성교를 방해하는 것이다. 또 남성 성기 삽입에 대한

공포로 질이 조건반사적으로 수축을 일으킬 때 생길 수도 있다.

▷성기능 장애 치료=상담과 행동요법(훈련), 약물 및 수술요법을 들 수 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심리적 측면의 장애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지식이 부족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파트너나 관계성에 대한 문제점은 정신요법이 필요하다.

행동요법은 성치료의 핵심으로 건강한 성적 반응의 학습이 필요하다. 신체적 측면에서 볼 때 성욕 장애는 우울증,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나 약물의 영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질, 외음부의 장애는 육안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나 성적 흥분, 윤활액, 성교통 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환자가 희망하면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도할 수 있다. 오르가즘 장애는 부인과진찰, 덧붙여 초음파검사도 질이나 골반저의 혈류 및 근긴장의 측정이 필요하다.

치료법으로는 필요시 다양한 오르가즘의 재개발 훈련, 골반저근의 훈련, 골반저 재건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교통은 기질적 질환이 있을 때에는 원인질환 치료가 우선이고 폐경 후 성기 위축에 의한 것은 호르몬 보충요법이나 펠리제가 유효하기도 하다. <이여일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0~30대 남성 '강직성 척추염' 주의

다리 저리는 증상없이 허리통증 지속 CT·MRI 등 영상검사로 조기 진단

척추질환은 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20~30대에서도 발병하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이 바로 그것이다.

전남대병원(원장 송은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8년간 강직성 척추염으로 치료받은 외래환자는 총 2866명이었으며, 20대~30대 환자가 1795명으로 전체 환자의 62.6%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대가 907명으로 3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20대 888명, 40대 544명, 50대 255명, 10대 126명 등이었다.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정도 흔하게 발생되고 병에 걸린 환자의 약 1/3 정도가 수십 년에 걸쳐서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남대병원 외래환자에서도 남자 환자가 2198명(76.7%)으로 여자 환자 668명(23.3%)보다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에 223명에서 2006년 319명, 2010년 535명으로 꾸준히 늘어

2003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척추질환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인자(rheumatoid factor)가 음성인 '혈청음성 척추관절염'이라는 질환군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엉덩이의 전장관절과 척추관절을 특징적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태중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및 골반이 뻣뻣해지는 강직현상과 오후에 주된 증상으로, 허리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시작된 통증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태중 교수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 없이 3개월 정도 허리통증이 지속된다면 방사선검사와 혈액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최근에는 CT, MRI와 같은 영상 검사 등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산구 수완동 'KS병원'

심혈관전문...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앞장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KS병원'(원장 이영철)이 지난 29일 개원하고 함께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항상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KS병원 관계자는 지난 30일 광주 광산구청과 마을리치적립서비스 도입을 통한 나눔실천, 무의탁노인 사람의 한끼 운동 전개, 주민대상 월 2회 무료건강검진 실시 등 3개 항에 협조키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개원시때 환관 대신 받은 쌀 150여 포대(20kg)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광산구청에 전달했다.

열병합발전소 옆에 위치한 KS종합병원은 부지면적 1만2000㎡에 지하 1층·지상 6층의 210개 병상 규모로 내과·심장내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치과 등을 갖춘 종합 병원이다.

더욱이 심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 최첨단 진단화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기, 심혈관및 중재시술촬영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선진응급 의료체계를 도입해 향후 권역별 응급센터로서의 발판을 구축했다.

이영철 원장은 "서남권 지역민들의 의료수요를 위해 첨단 진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진을 구성했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된 병원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학동 '해피뷰삼성병원'

최첨단 장비·명품 의료서비스 제공

해피뷰삼성병원이 최근 광주시 동구 학동 세라피아 파트 맞은편에 141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1일 해피뷰삼성병원(대표원장 안영수)에 따르면 이번에 개원한 병원은 1503㎡의 부지에 연면적 7097㎡로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모두 141병상(일반병상 133병상, 중환자실 8병상)의 입원실을 갖추고 있다.

또 내과(1·2·3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5개 과를 개설해 진료하며, 입원환자들의 건강관리와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건강증진센터도 갖췄다. 특히 해피뷰삼성병원은 환자들의 각종 질병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고가의 전문의료장비도 마련했다.

현재 병원이 확보한 최첨단 의료장비는 최신형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디지털 X-ray 촬영기(DR), 유방촬영(Mammography), 유방조직검사(Mammotome), 위장관투시촬영(UGI), 위·장 내시경검사(Endoscope), 골밀도측정(BMD), 복강경검사(Laparoscope),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 등이다.

김기현 행정원장은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당일 예약, 검사, 판독, 진료, 시술에 이르기까지 윈스톱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최신 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진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광주시민과 환자들에게 명품 의료 서비스 제공과 효율성 높은 치료로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214-중-21551 광고

나이가 들에 따라 생기는 안검의 노화 현상인 안검 피부의 처짐, 하수 및 외안 각부의 잔주름 등은 피할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또 안와지방이 불거져 나오면 이른바 축 늘어진 안검 변형이 생긴다. 또 기능적으로 안검열이 내려와 시야가 좁아지고 거근 근막의 약화로 안검하수를 초래할수 있으며 노인성 안검외반증 같은 증상을 일으킬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수술을 안검 성형술이라고 한다. 수술후 미용적인 교정뿐만 아니라 축 쳐진 눈꺼풀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시켜 줌으로서 기능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남성의 상안검 성형술은 상안검의 기능적인 문제 즉 안검하수, 시야장애, 눈썹하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원한다. 수술전 검사로는 먼저 시력을 체크하고 안구돌출, 안구운동, 각막이상 등의 안구의 이상유무를 먼저 검사해야 하며 유루누선이나 누소관, 누점등의 이상 등

의 누관계통 이상이나 안륜근의 이상, 눈썹의 이상, 하수의 유무, 안검 피부의 과잉도, 피부의 성상, 피부 병변의 유무, 좌우의차, 반흔의 유무등과 함께 안와 지방의 양과 돌출도, 돌출부위를 검토해 보는

4. 상안검과 하안검에서 안륜근의 양과 모양
5. 안검 피부에서의 색소침착과 노인성 및 퇴행성 변화, 안와골의 형태 눈물샘의 하수 정도 등이다.

상안검 성형술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1. 이마의 하수정도
2. 상안검과 하안검의 과도한 피부의 주름양과 정도
3. 양쪽 안검에서 돌출된 안와 지방의 양과 위치, 특히 상안검의 내측지방과 하안검의 외측지방.

수술은 쌍꺼풀선 없이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것과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대개 남자들은 쌍꺼풀선 없이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고 있으며, 여자들은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피부 제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동양인의 쌍꺼풀 높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6~8mm 정도이며 10mm이상 넘지 않도록 도안 하는것이

좋다.
수술후 12~24시간은 약간 압박 하면서 얼음 주머니에 의한 냉찜질을 수술 부위 반상 출혈이나 부종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세안은 7일정도 지나야 하며 눈화장도 7일 이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화장은 2주후에 하는것이 좋다. 무엇보다 수술전 환자와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작용으로는 상안검 피부를 과다하게 제거하면 상안검외반증이 생기며 양측 상안검 피부 제거를 다르게 하게되면 비대중이되며 상안검 피부 제거한 부위가 염증이 오면 반응이 생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

성형외과 김영길 원장